

“농협 존재이유는 농민... 농산물 제값 받게 해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위해 된다 조준성 화순농협 조합장

‘경제사업’에 최선... 농작물 생산비 30% 절감 목표
농민·지자체·직원 소통 강조...활력있는 농촌 만들기
로컬푸드직매장 확대·10월부터 첫 ‘농민수당’ 시행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들에게 있습니다.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취임 7개월 차에 접어든 조준성 화순농협 조합장의 한결같은 신념은 “농협의 본질을 찾자”다. 그가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본질이다.

최근 그는 화순지역 농두령을 돌며 그 어느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콤팩트를 직접 운행하며 벼 수확 작업에 팔을 걷어붙인 것. 수십년간 벼 농사를 지어왔고, ‘쌀전업농 연합회’ 초창기 멤버인 그는 그 누구보다 농촌을 잘 알고, 농민을 아끼는 심정이 남달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합장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쓰러진 벼를 낚고 바라만 볼 수만은 없었다고 한다.

조 조합장은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농민이다. 태풍으로 도복 피해가 심해 벼에 이미 싹이 나서 민간 영농조합은 농기계 파손의 우려 등으로 벼 수확 작업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농협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칠간 지역 눈에 들어가 콤팩트나 로 수확 작업을 했더니 나름대로 보람

도 있고, 농민들도 농협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더라. 이것이야말로 ‘농협의 본질’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의 본질’을 찾자는 차원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임 이후 그동안 가로막혀있던 농협의실과 조합실의 벽을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후 지역 농민들과 농민회 관계자 등은 수시로 조합장실을 드나들며 교류하고 있다.

조 조합장은 “농협의 모든걸 드러내고 진행하겠다는 의미에서 공간을 텅다”며 “농협의 업무는 함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농가의 농작물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화순지역 농업의 최대 문제는 농사주체인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급격히 줄고 있다는데다, 소농이 많다는 등의 문제를 지시했다. 여기에다 화순농협은 경제사업 부분에선 타 농협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농기계가 구축돼 있지 않는 등 경제사업 부분의 기반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조 조합장이 육묘장사업과 농기계은 행사, 농작업대행사업 등 경제사업시



조준성 화순농협 조합장.

설을 확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조합장은 “농협은 경제사업을 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해 주어야 한다. 농협 조합장을 나서게 된 이유도 경제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이었다”면서 “현재의 경우 농기계가 없어 타 지자체에서 임대해 쓰고 있는 형편이다. 농기계를 구축해 소농들을 위한 방제작업과 함께, 농산물 정지작업부터 건조와 수매까지 농작업을 일괄 대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일환으로 육묘장을 지어 상토비와 재료비만 받고 조합원들에게 공급하

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그는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쌀 가격이 10% 이상 떨어진다 하더라도, 생산비를 30% 줄이게 되면 농가소득 5000만원은 거뜬히 남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조합장은 로컬푸드 운영 및 활성화에도 주력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시설 하우스 농가 및 야채재배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50억원을 투입해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 인근에 ‘유기농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내년에 건립하게 된다. 또 이 지역적 특성을 화순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판로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조합원들의 복지에도 소홀하지 않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과정 교육과 영농철에 대비한 소형 농기계 무상 수리는 물론, 친환경 미생물 배양액 무상 공급, 조합원 건강검진, 농약 안전사용 PLS 교육, 조합원 영농자재 이용권 지급, 영농회 쌀 지원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농협 2층에 마련된 문화센터에서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다문화 여성대학 과정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달부터 화순에서 처음 시행하는 ‘농민수당’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고, 초기 자본이 들더라도 농기계와 시설을 갖추 농작물의 생산비를 줄이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켜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는 결국 경제사업으로 농협과 농민들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신용사업도 덩달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농민과 농협이 서로 ‘윈윈’ (상생) 할 수 있는 길이다.

조 조합장은 “제가 직접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왔고, 그동안 균형 농정심의, 농기계 화순군협회와 화순군체육회 등 크고 작은 단체들을 이끌면서 ‘쌀값을 지키기’와 ‘농산물 제값받기’에 누구보다 앞장섰기 때문이 농민을 해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화순 만큼은 쌀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박수진 기자

지역의窓



전남농협, 신제품 ‘새청무’ 전남 대표쌀 판매 본격 시작

농협전남지역본부부는 지난 16일 신제품인 ‘새청무’를 수확 중인 강진군농협 쌀공동조합법인(RPC) 현장을 방문하고 생산농민들과 새청무에 대한 품위 및 작황 등 의견을 나눴다.(사진)

새청무쌀은 전남 대표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 전남농협과 전남농업기술원, 생산자 농업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새청무 품종은 전남농업기술원이 청무와 새누리 품종을 교배해 개발된 품종이다. 특징은 농업인이 재배가 용이하고 중만생종이며 고품질 쌀로 밥맛이 우수하고 수발아 및 병해충에도 강하다.

이에 따라 전남농협은 새청무 품종을 전남쌀 대표품종으로 육성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담진쌀 참진쌀 새청무’ 브랜드로 새청무쌀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농협하나로유통 호남지사 마트멘토링지원단 워크숍

농협하나로유통 호남지사가 지난 17일 서울교육청 정독도서관에서 하나로 마트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협하나로마트 멘토링지원단 워크숍 및 착화식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마트멘토링지원단’은 호남·제주권 농협하나로마트에 재직중인 직원 중 역량있는 점장 혹은 실무자를 중심으로 총 15명(멘토)을 구성해 실무중심의 내실있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하나로마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마트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중심의 멘토링을 실시간 수행하는 컨설턴트 조직이다.

이날 행사에서 수도권 선진 유통매장 견학을 통해 하나로마트 발전방향 을 토의하는 시간과 함께 적극적인 멘토링과 자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현장에서 멘토링지원단 전원에게 착화식을 가졌다. 박수진 기자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채식뷔페 소비자 ‘호평’

화순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채식뷔페·카페’가 입소문이나 퍼지면서 지역민은 물론, 외지인들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사진)

화순농협 건물 1, 2층에 마련된 이곳은 농산물을 장거리 이동과 단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전량 소비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타 사·군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지난 17일 찾은 화순농협 건물 1층에 마련된 100평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 화순 농산물 재배지에서 직접 출하한 420여종의 싱싱한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매장을 수시로 오가며 농산물 생산에서 가격결정, 포장, 출하까지 직접 참여했다.

화순농협로컬푸드직매장은 총사업

비 14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6월에 개장했다.

화순농협이 중소농업인·고령농업인·여성농업인·귀농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장거리 이동과 단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전량 소비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소비들 또한 신선한 산지 농산물을 저



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행복나눔터’인 것이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임

없이 이어지면서 매출액이 지난 9월말 기준 22억을 기록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마련된 60평 규모의 채식뷔페 및 카페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당일 유통되는 신선한 채소만을 사용해 건강한 밥상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로컬푸드 채식뷔페도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민들은 물론 광주 지역 미식가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채식뷔페는 1인 이용객만 130명에 달한다. 글·사진·박수진 기자

선운지구 맞은편 선암마을 대지 160평 매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34번지 (호남대학교 옆 선운지구 맞은편 선암마을 내)
- 자연취락지구
- 매매가 평당 250만원
- 은행대출 2억
- 주인직매 010-8829-6876

순천시 풍덕동 대지 92평 매매

- ▶ 순천시 풍덕동 1288-20번지
-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 평당 170만원
- ▶ 은행대출 8천5백만원

주인직매
010-4601-0092